

마을주민의 공동체 의식과 주거만족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이은아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The Effects of Sense of community and Residential Satisfaction of Local Residents on Quality of Life

Eun-A Lee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SungKyu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마을주민의 공동체 의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주거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G시 마을주민 480명을 대상으로 대면을 통한 1:1 설문 조사한 결과, 불성실한 답변을 제외하고 총 468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WIN 25.0으로 빈도분석, 기술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 등을 활용해 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공동체 의식은 삶의 질과 주거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거만족도는 삶의 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거만족도는 공동체 의식과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효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마을주민의 공동체 의식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주거만족도가 미치는 효과의 중요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 마을주민, 공동체 의식, 주거만족도, 삶의 질, 매개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sense of community on the quality of life of local resident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residential satisfaction in the proces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To this end, as a result of 1:1 survey through a face-to-face survey of 480 local residents in G, Gyeonggi-do, a total of 468 samples were finally analyzed excluding insincere answers. The analysis method was SPSS WIN 25.0, and the mediation model was verified using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sense of community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 effect on quality of life and residential satisfaction. Second, residential satisfaction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Third, residential satisfaction was verified as a partial medi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nse of community and quality of life. Based on this study, the importance of the effect of residential satisfaction in the process of local residents' sense of community affecting their quality of life and practical measure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were presented.

Key Words : Villagers, Sense of Community, Residential Satisfaction, Quality of Life, Mediating Effect

1. 서론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세대갈등, 개인화, 사회에 대한 무관심, 공동체 의식 결여, 혐오범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지역사회에서 이웃과의 층간소음, 주차 문제 등의 물리적·정신적 갈등으로 살인까지 불러오고 있으며, 관리사무소 또는 경비인력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갑질 행위로 극단적인 선택 등 사회적 문

*Corresponding Author : Eun-A Lee(364379@hanmail.net)

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공동체 의식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2020년 우리나라 만19세~59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공동체 의식을 조사한 결과,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가 82.2%로 2019년 76.4%보다 증가함에 따라,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태도가 증가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1].

공동체 의식의 개념은 다양한 학자에 의해 정의되고 있으며, 오랫동안 사회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왔다. Sarason(1974)는 '구성원 간 서로 유사하다고 인식하는 지역사회나 집단에 소속되어 서로 의존적으로 자신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있다는 감정'으로 정의하였으며[2], McMillan & Chavis(1986)는 구성원이 가지는 소속감과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느낌, 구성원들의 욕구가 함께 노력하여 충족된다는 공유된 믿음이라고 하였다[3]. Kim(2013)는 공동체 의식을 우연한 기회가 아닌 주민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의식적이고 선택적으로 형성되고 개인 이해(interest)를 전제로 그 조정 위에 구성되는 것이며, 주민들의 상호작용, 상호교류를 통해 후천적으로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어 진다고 하였다[4]. 공동체 의식의 구성요소로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소속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충만함, 욕구 충족과 통합, 주민과의 연대의식, 지역사회와의 일체감과 지역사회의 상호영향의식, 그리고 정서적 친밀감과 장소 정주성으로 구성하였다[5].

공동체 의식 관련 선행연구에 따르면, 마을주민과의 접촉 및 만남을 통한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은 주거만족도와 마을주민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내재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보고하였다[6-8]. 이와 같이, 공동체 의식과 주거만족도는 마을주민 삶의 질에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할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기에 공동체 의식과 주거만족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삶의 질은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이며, 우리사회가 추구하는 중요한 목표로 Burckhardt(1985)은 불만족과 만족, 불행과 행복에 대한 인간의 느낌으로 정서나 정신적 면을 강조하였다[9]. Shalock(1990)은 삶의 질을 가족, 학교, 사회 등 공동체에서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고 욕구를 충족하는 개인적인 성과로 보았다[9]. 세계보건기구(WHO)는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권과 가치체계의 맥락 안에서 자신의 목표, 규범, 관심, 기대와 관련하여

인생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상태에 대한 개인적인 지각'으로 삶의 질을 정의하였다[10].

공동체 의식과 삶의 질 관계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공동체 의식은 삶의 질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지역사회의 참여 정도가 많을수록 공동체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공동체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11,12]. 특히, 현대사회는 다양한 가족형태, 가치관의 변화, 부양의식 변화, 계층간의 갈등 양상으로 공동체 의식의 결여로 공동체 의식 강화 및 회복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삶의 질 향상에 있어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을 포함하는 주거환경과 주거만족은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이다[13]. 주거만족도란 주거의 개념과 만족도의 개념이 합쳐진 개념으로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 및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생활을 포함하며 자신이 거주하는 주거환경에 대해 만족 또는 불만족을 느끼는 주관적 평가의 정도를 말한다[13]. 주거만족도는 주관적 만족의 정도로 주거환경 변화와 거주자의 개인 특성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속성을 가진다[14].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물리적(주거의 형태, 규모, 구조, 부대시설 등), 사회적(인구밀도, 근린시설, 사회적지위 등), 경제적(주택구입비, 임대료, 관리비 등), 심리적(주민과의 친밀감과 소통 등) 요인으로 총 4개의 구성요소로 제시하였다[13]. 특히, 대중교통의 편리성, 생활편의시설, 사회복지시설의 접근성 등 근린환경 요인들이 주거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5].

주거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Jang & Lee(2001)은 커뮤니티 의식(연대감, 소속감 및 상호영향의식, 정서적 친밀감, 충족감)이 지역사회 만족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16], Hong & Chae(2004)은 공동체 의식이 주거만족도에 정(+적 상관관계를 제시하였다[17]. 반면 Kang(2010)은 지역공동체 의식과 주거만족도 관계에 있어 거주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였다[18].

또한 Jin(2020)은 주거만족도가 지속적 거주 의향과 삶의 질에 미치는 관계를 검증하였으며[19], Shin(2020)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만족도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20].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 비추어보면, 마을주민의 공동체 의식 수준 향상과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사회적으로 공동체 의식 결여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재 공동체 의식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주거만족도를 매개변인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마을주민의 공동체 의식이 주거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공동체 의식이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인과과정을 검증하고 매개역할을 하는 주거만족도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는데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마을주민의 공동체 의식, 삶의 질, 주거만족도의 관계는 어떠한가?
2. 마을주민의 공동체 의식과 삶의 질 관계에서 주거만족도는 매개역할을 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마을주민의 공동체 의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주거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설정한 연구모형을 Fig. 1과 같이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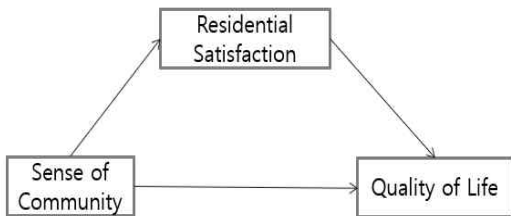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경기도 G시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였다. 조사기간은 2020년 5월 10일부터 5월 24일까지 약 2주에 걸쳐 대면을 통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인 G시 거주 지역주민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 의사가 있는 지역주민 480명을 대상으로 사전 동의 후 실시하였으며, 그중 불성실한 응답 및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응답자 12부를 제외하고 총 468부를 본 연구의 유효표본으로 선정하여 최종 분석하였다.

2.3 측정도구

2.3.1 독립변수 : 공동체 의식

공동체 의식 측정은 McMillan & Chavis(1986), Kim & Kim(1998), Park(2013), Jang(2020)의 척도를 기반으로[3,5,21,22] 총 22문항을 구성하였다. 공동체 의식척도는 연대감(3문항), 구성원 의식(3문항), 상호영향의식(4문항), 정서적 친밀감(3문항), 충족감(6문항), 장소 정주성(3문항)으로 총 6개 하위요인으로 추출되었다. 각 문항별 5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체 의식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공동체 의식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적재량 0.5 이상인 문항만을 추출하여 타당도에 문제없는 것으로 나타났다(KMO=.852, Bartlett's $\chi^2=3235.177$, $p<.001$). 본 연구의 공동체 의식척도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47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2.3.2 종속변수 : 삶의 질

삶의 질 측정은 WHO가 제작한 WHOQOL-BREF의 단축형 척도를 Min et. al(2002)이 변안한 한국판 WHOQOL-BREF를 사용하였다[23]. 이 척도는 신체적 건강영역(7문항), 사회적 관계 영역(3문항), 심리적 건강영역(6문항), 생활환경 영역(8문항), 전반적 영역(2문항)으로 총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총 26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 수준이 높은 수준임을 뜻한다. 한국판 WHOQOL-BREF의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9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삶의 질 척도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95로 높게 나타났다.

2.3.3 매개변수 : 주거만족도

주거만족도 척도는 Jae(2016)와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이 공동으로 주관한 '2017년 주거실태조사'에서 사용한 척도를 기반으로 총 7문항을 구성하였다[24]. 주거만족도는 대중교통 인접성, 의료시설 인접성, 교육환경, 문화시설 인접성, 복지시설 인접성, 도시공원 및 녹지 등 자연환경,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로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주거만족도 수준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의 주거만족도 척도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50로 신뢰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2.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의 수집된 자료는 SPSS(Version 25.0)를 이용하여 마을주민의 공동체 의식과 주거만족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공동체 의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주거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은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본 연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들의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공동체 의식, 삶의 질, 주거만족도 척도의 내적 일관성 검증을 위한 신뢰도 분석(Cronbach's α)과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셋째,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Pearson)의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넷째, 마을주민의 공동체 의식과 주거만족도가 마을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과 Sobel Test로 주거만족도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들의 성별, 연령, 학력, 동거유형, 주거 소유형태, 월평균 소득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성 26.1%(122명), 여성 73.9%(346명)이고, 연령대는 청장년층(18세~49세) 56.5%(261명), 중장년층(50세~64세) 23.8%(110명), 노년층(65세이상) 19.7%(97명)로 평균 연령은 48.19세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이하 52.9%(244명), 전문대졸 이상 47.1%(217명)이며, 동거유형은 '1인 가구' 24.3%(113명), '2인 이상 배우자 또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주민은 75.7%(352명)의 비율을 나타냈다. 주거 소유형태는 자가 47.3%(215명), 전월세를 포함한 임대주택은 52.7%(240명)를 차지하였다.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 이상이 188명(43.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00만원 미만 29.2%(126명),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3%(66명),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1.8%(51명)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468)

| Variables | | N | % |
|----------------------|-------------------|-----|------|
| Gender | Male | 122 | 26.1 |
| | Female | 346 | 73.9 |
| Age | Ages 18 to 49 | 261 | 56.5 |
| | Ages 50 to 64 | 110 | 23.8 |
| | 65< | 91 | 19.7 |
| Education | >High school | 244 | 52.9 |
| | Junior college< | 217 | 47.1 |
| Live together family | Single | 113 | 24.3 |
| | With Spouse & Etc | 352 | 75.7 |
| Residential type | Rented Household | 240 | 52.7 |
| | One's own House | 215 | 47.3 |
| Monthly Income(won) | >100 million | 126 | 29.2 |
| | 100≤a<200 million | 51 | 11.8 |
| | 200≤a<300 million | 66 | 15.3 |
| | 300 million< | 188 | 43.7 |

3.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마을주민의 공동체 의식, 삶의 질, 주거만족도에 대한 기술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독립변수인 공동체 의식의 평균값은 3.24(SD=.456)이며, 종속변수인 삶의 질 평균값은 3.35(SD=.658)이다. 매개변수인 주거만족도의 평균값은 3.24(SD=.477)로 나타났다. 왜도의 절대값=3과 첨도의 절대값=10을 초과하지 않아 주요 변수는 정규분포곡선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Table 2. Charactersics of Major Variables (N=468)

| Variable | Mean | SD | Skewness | Kurtosis |
|--------------------------|------|------|----------|----------|
| Sense of community | 3.24 | .456 | .039 | 1.017 |
| Residential satisfaction | 3.24 | .477 | .458 | .146 |
| Quality of life | 3.35 | .658 | -.226 | 1.063 |

3.3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주요 변수 간 공동체 의식, 삶의 질, 주거만족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먼저, 공동체 의식과 삶의 질은($r=.500, p<.001$)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공동체 의식과 주거만족도는($r=.484, p<.001$)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주거만족도와 삶의 질은($r=.448, p<.001$)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3. Correlations among Major Variables (N=468)

| Variable | Sense of community | Quality of life | Residential satisfaction |
|--------------------------|--------------------|-----------------|--------------------------|
| Sense of Community | 1 | | |
| Quality of Life | .500*** | 1 | |
| Residential Satisfaction | .484*** | .448*** | 1 |

p<.001***

Table 4. Effect of Sense of community, Residential satisfaction on Quality of life (N=468)

| Variable | Model 1 | | | Model 2 | | | Model 3 | | |
|--------------------------|-----------|---------|-----------|-----------|---------|-----------|-----------|---------|----------|
| | B | β | t | B | β | t | B | β | t |
| Gender | -.094 | -.062 | -1.397 | -.065 | -.061 | -1.375 | -.046 | -.042 | -1.001 |
| Age | -.080 | -.097 | -1.694 | -.053 | -.089 | -1.585 | -.036 | -.061 | -1.127 |
| Education | -.032 | -.039 | -.721 | .053 | .092 | 1.714 | .060 | .103 | 2.016* |
| Live together family | .123 | .072 | 1.470 | .051 | .042 | .871 | .026 | .021 | .453 |
| Residential type | .023 | .017 | .378 | -.045 | -.048 | -1.049 | -.050 | -.053 | -1.215 |
| Sense of Community | .715 | .485 | 10.957*** | .520 | .493 | 11.282*** | .370 | .351 | 7.380*** |
| Residential Satisfaction | | | | | | | .210 | .293 | 6.278*** |
| F | 21.241*** | | | 23.497*** | | | 27.667*** | | |
| R ² | .238 | | | .257 | | | .322 | | |
| Adjusted R ² | .227 | | | .246 | | | .311 | | |
| Durbin-watson | 1.754 | | | | | | | | |

p<.05*, p<.01**, p<.001***

3.4 공동체 의식과 주거만족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마을주민의 공동체 의식과 주거만족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마을주민의 주거만족도가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1996)의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마을주민의 공동체 의식과 주거만족도를 독립변수로, 삶의 질은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 삶의 질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고된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운데 성별, 연령, 학력, 동거유형, 주거 소유형태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통제변수는 더미변수(성별: 남=1, 여=0, 학력: 고졸이하=1, 전문대졸 이상=0, 동거유형: 1인가구=1, 2인이상=0, 주거 소유형태: 없음=1, 자가=0)로 처리하였다.

Table 4는 회귀분석 결과로 Durbin-Watson D통계량 1.754로 잔차의 자기상관성은 문제없으며, 분산팽창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는 1.069~1,754로 다중공선성도 문제 또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1에서는 마을주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통제변수(성별, 연령, 학력, 동거유형, 주거 소유형태)와 공동체 의식을 투입하여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았다. 모델 2에서는 통제변수와 공동체 의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 모델 3에서는 모델 2에 매개변수인 주거만족도를 추가 투입하여 그 영향력을 살펴보고았다.

모델 1에서는 먼저 마을주민의 인구사회학적 통제변수와 공동체 의식을 투입하여 주거만족도와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통제변수들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동체 의식은($\beta=485$, $t=10.957$, $p<.001$)는 주거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나, 공동체 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마을주민의 주거만족도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모델 1의 영향력은 23.8%($R^2=.238$)로, 회귀모형은($F=21.241$, $p<.001$)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에서는 통제변수와 공동체 의식을 투입하여 종속변수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모델 1과 마찬가지로 인구사회학적 통제변수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마을주민의 공동체 의식($\beta=493$, $t=11.282$, $p<.001$)은 삶의 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 마을주민의 공동체 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의 영향력은 25.7%($R^2=.257$), 회귀모형은($F=23.497$, $p<.001$)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3에서는 모델 2에 매개변수 주거만족도를 추가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모델 1과 2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운데 학력($\beta=.103, t=2.016, p<.05$)이 삶의 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거만족도($\beta=.293, t=6.728, p<.001$)은 삶의 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주거만족도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마을주민 공동체 의식($\beta=.351, t=7.380, p<.001$)은 삶의 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동체 의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의 수준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모델 2에서 유의미하게 확인되었던 독립변수 공동체 의식은 모델 3에서 삶의 질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동체 의식과 삶의 질 관계에서 주거만족도가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델 3의 영향력은 $32.2\%(R^2=.322)$, 회귀모형은($F=27.667, p<.001$)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삶의 질에 대한 영향력이 모델 2보다 6.5% 향상되었다.

3.5 공동체 의식과 삶의 질 간의 주거만족도 매개효과 검증

앞서 수행한 마을주민의 공동체 의식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주거만족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첫째, 공동체 의식(독립변수)은 주거만족도(매개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공동체 의식(독립변수)은 삶의 질(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동체 의식(독립변수)과 주거만족도(매개변수)가 삶의 질(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회귀분석에서 공동체 의식과 주거만족도는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주거만족도가 공동체 의식과 삶의 질 간의 인과관계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한 결과이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체 의식과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주거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Fig. 2와 Table 5와 같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정(+)적 매개효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Z=5.508, p<.001$). Sobel Test는 Sobel 검정값(Z)이 $z>1.96, z<-1.96$ 을 만족시킬 경우에 매개효과가 유의미하다고 간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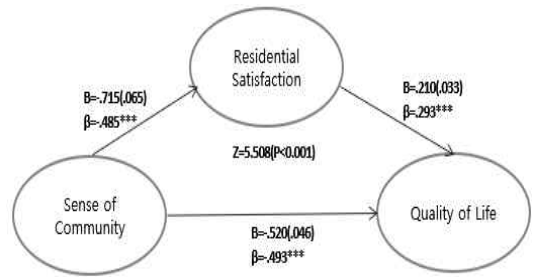


Fig. 2. Mediating effect of Residential 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nse of Community and Quality of Life

Table 5. Sobel-Test (N=468)

| Paths | Z | p | Mediating Effect |
|---|-------|------|-------------------|
| Sense of Community → Residential Satisfaction → Quality of Life | 5.508 | .001 | Partial Mediating |

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마을주민의 공동체 의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주거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경기도 G시 거주하는 마을주민 480명을 대상으로 대면으로 1:1 설문조사를 통하여 최종 468명의 유효표본을 대상으로 SPSS(Version 25.0)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주민의 공동체 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 수준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이는 마을주민의 공동체 의식이 삶의 질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11,12]와 일치함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마을주민들 간의 접촉 및 만남은 공동체 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곧, 지역사회에 내재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서 주민참여 기회를 증진시키고 주민들이 스스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현재 지역별로 마을만들기 운동과 마을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마을주민이 자주적으로 마을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마을주민들은 소속감과 유대감을 바탕으로 상호작용하여 마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함으로써 마을에 대한 애착심과 관심이 증대되고 공동체 의식 수준의 지수가 높아지면 결국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선행연구 결과[6-8]와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을주민의 공동체 의

식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체 의식에 관한 주민교육과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마을주민의 욕구와 일치되는 소모임 활동 지원과 더불어 주민제안공동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지원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마을주민의 공동체 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주거만족도가 향상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공동체 의식과 주거만족도 간의 관련성이 높다고 주장한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며,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을수록 주거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결과와 일치했다[13-15]. 이는 공동체 의식 수준과 마을주민의 주거만족도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긍정적 영향을 미쳐 마을에서의 계속적 거주 의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사회에서 개인주의 심화로 발생하는 주거만족 저해 요인들을(층간소음, 주차문제 등) 예방하거나 혹은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마을주민의 소통창구가 필요하다. 또한 올바른 공동체 문화는 주거만족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에 마을주민 간 갈등해소 및 통합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공동체 의식 배양을 통해 주거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마을주민의 공동체 의식과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주거만족도가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마을주민의 공동체 의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주거만족도의 매개효과 연구가 많지 않아 비교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공동체 의식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주거만족도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 [18-20]는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마을주민의 공동체 의식은 삶의 질에 직접적 영향과 주거만족도를 통해 간접적 영향을 미치며,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삶의 질 향상에 있어 주거만족도가 긍정적인 변인임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는 마을주민의 공동체 의식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주거만족도가 매개역할로 그 중요성을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따른다. 즉, 표집 대상을 경기도 1개 지자체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거주 지역이나 지리적·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마을주민의 삶의 질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표집하여 보완한 연구들과 주거복지 관점에서 임대아파트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마을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특정 시기의 경험과 관찰만으로 파악할 수 없으며, 일생의 전 시기에 경험해 온 사건들에 대한 의미 있는 해석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양적연구와 함께 질적 연구를 병행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어지는 과정까지 담아내는 종단적 연구도 함께 이루어지길 소망한다.

REFERENCES

- [1] 2020 Social Conflict and Perceptions of Community Awareness Survey. <https://www.trendmonitor.co.kr>
- [2] Sarason, S. B. (1974). *The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 Prospects for s Community Psychology*. Cambridge, MA: Brookline books.12. Tönis, F. DOI : 10.22156/CS4SMB.2020.10.09.136
- [3] McMillan, D. W. & Chavis, D. M. (1986). Sense of Community: A theory and definitio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6-23.
- [4] S. M. Kim. (2013). *A Study on the Effect of Resident Participation Types on the Formation of Community Awareness in Apartments: Focusing on Comparison of Community Awareness of Nowon-gu and Siheung City Apartment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Urban Science, University of Seoul.
- [5] K. J. Kim & S. S. Kim. (2019). A Study on the Residents' Sense of Community in Korea. *Community Development Studies*, 23(2), 213.
- [6] M. H. Choi & M. G. Jeong. (2015). The Effect of Sense of Community on Citizen Participation. *Th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9(2), 273-306. DOI : 10.18333/KPAR.49.2.273
- [7] K. Y. Park. (2007). Review of the Community Spaces and Programs for Activated Community Relationship of Apartment Residents. *Journal of Human Ecology*, 10(2), 113-129.
- [8] H. S. Baek. (2005). Vitalization of a Sense of Community and Welfare Facilities in Apartment Complexes. *The Spring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for Residential Environment*, 29-43.
- [9] E. A. Kim, H. S. Kim, Y. S. Ra & B. R. Sea. (2014). Influence of Satisfaction of Participants Whose is Studying at Lifelong Learning about the Quality of

- Life and Social Integration-Mediating Effect of Sense of Community around the Area-. *Korean Academy of Practical Human Welfare*, 12, 149-168.
- [10] M. S. Gil, K. I. Kim & I. H. Park. (2002). *The Korean versio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s Guide to Quality of Life Scale*. Seoul: One Bachelor.
- [11] S. M. Kim, H. H. Kim & S. W. Lee. (2020). The Quality of Life and Social Support Network : The Influence of Public Policy to Social Support Network. *Korea Regional Public Administration Institute*, 34(1), 227-268.
DOI : 10.22783/krila.2020.34.1.227
- [12] Y. S. Choi, D. Y. Hwang, E. S. Park & J. S. Ko. (2004). Rural Resident's Community Life Satisfaction and Consciousness of Rural Community. *Korean J. Community Living Science*, 15(4), 113-125. UCI : G704-001337.2004.15.4.040
- [13] S. B. Park & N. Y. Lee. (2018). Causal Relationship of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Consciousness to Housing Satisfaction. *Korea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30(1), 109-137.
DOI : 10.21888/KPAQ.2018.3.30.1.109
- [14] H. S. Oh. (2013).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Residential Satisfaction and Satisfaction Changes According to the Residential Environment: Focusing on the Reconstruction of Gwacheon City*.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Seoul.
- [15] G. M. Nam, H. Y. Choi & H. J. Jun. (2017). Factors Influencing Residential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by Age Groups. *Journal of the Korean Policy Association*, 26(3), 1-23.
- [16] J. H. Jang & I. H. Lee. (200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nse of Community and Resident Self-Help Activities. *Journal of the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 4(2), 15-26.
- [17] H. O. Hong & H. W. Chae. (2004). Attitude Differences on Common Space Management between Expecting Residents and Residents in High Rise Mixed-use Residential Building.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2(5), 123-132. UCI : G704-000320.2004.22.5.018
- [18] A. Y. Kang. (2011). *The influences of City Reputation Decision Factors on City Reputation, Sense of Community, Residence Satisfaction and Loyalty*. The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 [19] S. J. Jin. (2020). *A Study on Housing Choice, Housing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Living in Semi-house in Seoul : Comparative Analysis of Semi-houses Between Studio and One-room type Officetel*.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Venture Unvers, Seoul.
- [20] H. G. Shin. (2020). *A Study on Housing Satisfaction & the Subjective Quality of Life of Tenants in Public Rental Housing : Focusing on LH Public Rental Housing in Gyeongnam Province*.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 [21] S. H. Park, T. Y. Kim & K. H. Hyun. (2013). A Study on the Formation of Sense of Community Through Cultural Community Building Project : Focusing on the Case of Seongnam's 「Making Our Neighborhood a Cultural Community.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Development*, 25(5), 207-229.
- [22] S. J. Jang. (2020). *Mixed Method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in Lifelong Education and Sense of Community: Focused on the Case of Sejong City*. The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 [23] S. G. Min & K. I. Kim. (2002). *(Korean Version) WHO Guidelines for Quality of Life Scale*. Seoul: Hanuihagsa.
- [24] H. D. Jae. (2016). *An Analysis on Structure of Residential Satisfaction Determinants and Importance of Housing Welfare Policy with a Focus on Low-Income Households by Housing Types*. The Graduate school of Urban Studies Hanyang University.

이 은 아(Eun-A Lee)

[정회원]



- 2003년 2월 :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부(문학사)
- 2010년 2월 :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16년 2월 :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박사)

- 2014년 3월~현재 :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노인복지, 지역복지, 가족복지, 사례관리
- E-Mail : 364379@hanmail.net